



# 양계안테나

홍보팀

## 올유년 닭의 해 새해를 차분히 준비하자

올유년 닭의해가 밝았다. 다사다난했던 갑신년은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로 너무나 힘들었던 한 해였으며, 그 공포는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물론 하반기 고가의 양계산물 시세 형성으로 그나마 농가들의 시름을 달래주기도 하였지만 몇 년간의 불황 이후 찾아온 고통은 어느 것 보다 잊혀지지 않는 아픔이었다.

금년은 다양한 일들이 우리양계에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적으로는 양계업 등록제가 12월 26일을 마지막으로 최종 마감이 된다. 이번 등록제는 무허가나 허가에 관계없이 모든 양계인들이 등록을 마쳐야 하는 만큼 선진국 도약을 위해 모든 양계인들이 조속히 등록을 마쳐야 할 것이다. 또한 국외적으로는 일본, 미국 등 FTA 타결로 국제 시장은 더욱 거세게 국내 농산물을 위협할 것이고, 닭고기는 브라질산 닭고기가 무저항적으로 들어올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다.

또한, 질병문제가 여전히 강조될 것이며 최근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종계장부화장방역실시요령이 오는 5월부터 실시를 앞두고 있어 정부와 농가들 간의 마찰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백세미에 대한 별도의 관리방안 마련도 추진될 움직임을 보이면서 백세미에 대한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 까지 지지부진했던 양계의무자조금 제도가 육계는 이미 사업단 구성에 들어간 상태이고, 채란업의 경우 거출기관이 어느정도 윤곽이 드러나면서 본격적인 추진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정부와 본회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종계장 DB구축은 육계업의 안정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면서 강력하게 추진 될 것으로 보여 긍정적인 반향을 불러오고 있다.

이외에 육계업에서는 육계표준계약서 사용 정착을 위한 합의가 도출될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너무나 거리가 있었던 계열업체와 농가들의 화합의 장이 마련된 만큼 소기에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대안이 도출되기를 바란다.

이 외에 수입저지를 위한 운동 전개, 각종 소비홍보 활동,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면서 어느 해 보다 준비를 많이 해야 하는 한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모든 일에 적극성을 띄고 모든 양계인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닭의해로 이끌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모든 양계인들이 웃을 수 있는 을유년 닭의해를 기대해 본다.

##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근본적인 대처 방안 시급

지난 12월 22일 저병원성 의심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광주 종오리 농장에 대한 수의과학검역원이 바이러스 유전자 분석결과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최종 판정되었다.

지금까지 국내 발생한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H9N1인 반면에 광주 종오리농장에서 확인된 인플루엔자 혈청은 H5N2이다. 이는 국내 처음으로 발생한 것이고 더구나 H5 계열이라는 점이 주목되고 있다. 방역당국은 바이러스가 어떠한 경로를 통해 농장에 유입되었는지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규명키로 하고 발생농장 반경 500m 이내의 오리 3농가와 역학적 관련이 있는 농가 및 부화장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은 일본의 조류인플루엔자 사람 감염 보도 이후 나타난 것으로 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크게 일고 있다.

이제 국내에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종류가 많아지고 그만큼 우리의 업계는 외줄을 타고 있는 느낌을 주고 있다. 양계업가 아닌 가금업계가 조류인플루엔자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선 이번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농장처럼 방역시설이 전혀 없고, 인근에 오리농가가 많고, 사람출입이 자유로운 농장 구조를 하루 속히 개선시켜야 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거대한 피해를 입은 가금업계의 입장에서 종오리 농가가 방역시설 하나 없이 질병에 완전 노출된 상황이 재연되고 있어 임상증상이 확인한 닭을 사육하는 양계농가 입장에서는 늘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는 것이다. 이 때문에 양계농가 일부에서는 오리농가 때문에 양계를 할 수 있을까 걱정된다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여 정부는 오리와 닭에 대한 보다 치밀한 공동 질병 방역 대책을 세워 오리에 의한 닭의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2005 한국국제축산박람회 8월 31일-9월 2일까지 대전엑스포 공원에서

오는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3일간에 걸쳐 대전 KOTREX 전시관과 EXPO공원에서 “깨끗한 환경과 안전한 축산물”을 주제로 본회를 비롯해 (사)대한양돈협회, (사)한국낙농육우협회, (사)전국한

우협회, (사)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 등 5개 축산단체가 주최하고, 한국국제축산박람회 추진위원회가 주관이 되어 농림부, 농협중앙회, (사)한국사료협회, 대전광역시 등이 후원하는 2005년 한국국제축산박람회(KISTOCK 2005)가 제 4회째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번 2005한국국제축산박람회는 지난 1999년부터 양계박람회에서 축산박람회로 확대되어 개최되면서 실제적으로는 8회째를 맞이하는 것이다. 본 박람회의 지난 199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당시 본회가 양계산업의 발전과 미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서울 올림픽경기장에서 1회를 시작하면서 개막이 되었다. 격년마다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1993년 제2회대회는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보다 완벽하게 치루면서 국제대회로의 발걸음을 내디뎠고, 양계산업의 자동화, 선진화에 큰 기여를 하게되었다. 이후 3, 4회 한국국제양계박람회는 1997년까지 같은 장소에서 어느 국제대회에 뒤지지 않는 규모로 훌륭히 치뤄지면서 양계산업을 한단계 업그레이드시키고, 소비자들과의 거리를 좁혀주는 계기를 마련하게되었다. 그러나 1997년 12월 IMF 외환위기로 단독개최가 어렵게 되면서 축산박람회로 확대, 개최하자는 의견을 수렴하여 1999년부터 제1회 국제축산박람회로 승화되어 지금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번 대회는 환경을 중시하고 미래 축산에 대한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주제로 치뤄질 것이며 12,200m<sup>2</sup>의 대전의 넓은 공간아래서 시원스럽게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대회는 우리나라 축산업의 질적 성장과 재도약의 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국내외 첨단 기술보유업체의 참여를 유도하여, 더욱 안전하고 품질좋은 생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설비와 기술개발을 유도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올바로 소비자들에게 홍보하는 장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본 박람회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장소 이동에 따른 박람회의 인지도를 얼마나 높여가느냐에 있다. 과거 박람회에서도 홍보문제는 계속 지적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었다. 대전의 경우 우리나라의 중심도시이기 때문에 전국에서 축산인들이 쉽게 모일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서울보다 인지도가 다소 떨어지고, 특히, 외국 참여업체들의 관심이 어느때 보다 감소할 수 있다는 부담도 숙제로 남게 되었다.

국내 소비자들의 관심을 끄는데도 한계를 보일 수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본추진위원회에서는 한류열풍과 연계하여 외국인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한다는 계획과 국내적으로는 각종 매스컴의 관심을 유도하여 홍보효과를 극대화 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2억여원의 예산으로는 충분한 홍보효과를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입장이기도 하다. 일부에서는 1년에 축산관련 박람회가 너무나 많이 개최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축소를 시키거나 합병을 해서 실속을 찾아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축산박람회도 브랜드전과의 중복성으로 인해 단일화를 시도했으나 주관 단체들의 이견이 커 성사가 되지 못하고 해만 거듭하고 있다. 전통성과 실속을 따져 사치성의 박람회가 되지 않고 유익한 박람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어쨌든 본 박람회가 축산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소비자들과 하나가 될 수 있는 박람회로 거듭나 국제적인 축산박람회의 명성을 유지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양계**